

호시노재심 뉴스 206 후 2015년 7월 15일 발행



호시노(星野)씨가 그린 이번 달의 그림
『향기 나는 라일락과 장미』



629 전국집회의 참가자가 「단결 열심히 하자」의 구호 함창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6.29 전국집회 670 명이 뜨거운 결의 백만명의 서명운동으로 호시노씨의

해방을

6월 29일 우에노(上野) 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전국집회에 670 명이 모여 호시노 후미아키(星野文昭) 씨를 되찾기 위해 백만명의 서명을 모으는 싸움에 나서자고 뜨겁게 결의했습니다.

사회는 투쿠시마(徳島) 구하는 모임의 센다 테즈야(仙田 哲也) 씨와 산타마노동조합 교류센터의 오오하타 노부코(大畠 信子) 씨입니다. 처음에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 씨의 메시지를 아키코(暁子) 씨가 낭독해 "후미아키를 70 살까지 되찾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국의 카나야마 카즈미(金山 克巳)가 기조보고를 해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 씨를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오키나와(沖繩) 투쟁을 싸워 39년간 비전향을 관철하는 호시노씨를 되찾기 위해 2010년대 중기의 격투속에서 백만명의 서명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으로 ①백만명 서명을 전국의 노동조합이나 학원 지역에 침투시켜 호시노씨 해방의 전인민적 투쟁을 만들어 내자 ②토우쿄우(東京) 고등재판소.토우쿄우(東京) 고등검찰청과 철저히 싸워 모든 증거를 개시 시키자 ③호시노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④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 씨.아키코(暁子) 씨와 단결하자고 제기했습니다. 더욱해서 8.17 아베(安倍) 정권 타도 대집회에 모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바라키(茨城) 되찾는 모임의 쿠사카베 노보루(日下部 伸) 씨의 모금.어필은 회장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재심변호단의 보고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 호시노씨와 함께 투쟁하는 결의 등 집회 전체를 통해 호시노씨를 해방하는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마루오(丸尾) 메구미씨 후쿠야마 류우이치(福山 竜一) 씨에 의해 "소리다리티" "토리모도소우(되찾자) 호시노" "아노사카오 노봇테(저 언덕을 올라)"가 연주되어 참가자는 모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오야나기 요우코(青柳 葉子) 씨가 "집회선언"을 힘차게 제기해 마지막에 "단케즈오 칸파로우(단결을 힘내자)"하고 "소리다리티"의 대합창으로 백만명의 거대한 운동을 펼쳐 나가자며 전원이 뜨겁게 맹세했습니다.

집회의 이틀후 솟아오르는 반대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安倍)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기 위해 각의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름.가을의 투쟁으로 아베(安倍) 정권을 쓰러트려 호시노씨를 되찾자.

집회선언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 씨 해방! 백만명의 서명운동에

옥중 39년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고 있는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 씨를 드디어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들은 2010년대 중기의 계급적 격투속에서 반드시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 씨를 되찾습니다. 그를 위해 오늘집회로부터 모든 증거개시.재심개시를 요구하는 백만명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벽에 부딪쳐 겨우 1%의 자본가가 연명하기 위해 아베(安倍) 정권은 쿠데타적인 방법으로 개헌.전쟁의 길을 내디뎠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본 아래에서 노동자 민중이 나날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과 전쟁에서 노동자끼리 서로 죽이고 있는 현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살게 해달라! "전쟁 절대반대!"의 분노가 사회의 근저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틀림없이 생명까지도 빼앗는 무기징역에서 "희망"의 실을 찾아내온 호시노투쟁과 결합합니다. 백만명 서명운동에 전력으로

몰두해 호시노씨를 되찾자.

호시노씨가 싸운 70 년 일미 안전보장조약.오키나와 (沖繩) 투쟁은 오키나와의 분노와 하나로 합쳐진 청년노동자.학생이 체제 지도부를 극복해 등장한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본토.오키나와 (沖繩) 의 분단을 타파하는 이 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 전체가 거칠게 등장하는 것에 공포를 느낀 국가권력은 호시노씨에 대해 "살인죄"로 날조해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 공격은 국철.분할민영화에 의한 노동조합 해체 공격과 하나였습니다.

호시노씨 (星野) 와 아키코 (暁子) 씨는 전력으로 이 공격에 맞서 전쟁 절대반대의 불굴의 투쟁을 지켜왔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공격과 최첨단에서 싸우는 호시노=아키코투쟁은 계급적 노동운동과 그 거점 건설의 투쟁에 근본적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철 치바 (千葉) 동력차 노동조합은 1047 명 해고 철회투쟁을 관철해 국철 분할.민영화에 의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토우쿄우 (東京) 고등재판소에게 인정 시켰습니다. 세계공황이 점점 깊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타파하는 외주화.비정규직 철폐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福島) 의 분노와 하나가된 피폭노동 거부를 위해 싸우는 국철 미토 (水戸) 동력차 노동조합의 파업은 후쿠시마 (福島) 를 압살시키려는 공격을 날려 버리고 모든 인민의 투쟁을 해방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호시노씨의 재심청구 투쟁은 날조한 증거로 무죄인 호시노씨에게 강제로 무기징역을 내린 국가범죄를 탄핵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2009 년에 "노동자 계급의 힘으로 호시노씨를 되찾는"노선을 세웠습니다. 전국 노조 교류센터와 함께 싸운 두번의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 포위데모는 호시노씨와의 단결을 굳게해 노동자 계급의 혼을 근저로부터 흔들여 움직이는 감동을 만들어 냈습니다.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찬동을 얻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가 아키코 (暁子) 씨와 굳게 신뢰를 쌓아 올려 비전향으로 전쟁을 반대하며 국가권력과 계속 투쟁해 나가고 있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신뢰가 되고 희망이 되며 새로운 단결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혁명』하고 "소리다리티"를 무기삼아 백만명의 서명운동을 추진해 전쟁과 싸우는 거점을 무수하게 만들어내 그 힘으로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를 반드시 되찾읍시다.

2014 년 6 월 29 일

국제연대 메시지



동지로서 뜨거운 연대를

한국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강용준

아베 (安倍) 정권은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동지를 즉시 무죄석방하라!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동지의 무죄석방 요구 결의대회에 참가하신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강용준입니다. 동지 여러분에게 힘차게 "투쟁 (鬪争)"으로 인사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세계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정권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민중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동지는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정권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그로인해 정권의 의한 날조 때문에 구속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고 노동자 계급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동지로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도 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정권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주인공이 되는 해방의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으며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동지 처럼 정권의 날조에 의해 구속되어 처형당한 많은 민주열사와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끈기 있는 투쟁으로 30~40년이 지난후 무죄가 밝혀지는 등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정권에 맞서 노동자 계급 해방을 위해 전세계의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연대를 보다 한층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아베 (安倍) 정권에게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동지를 즉각 해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다시한번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동지의 투쟁에 동지로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도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동지의 무죄석방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합니다. 투쟁 (鬪争) !

흔들리지 않는 강한 혼을 가진 호시노
변호사.정치투옥 귀환자 린.스튜어트

나는 이 메시지를 나의 형제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를 위해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형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가 40 년에 걸친 흔들리지 않는 강한 혼을 가지고 계속해서 옥중에서 저항을 해 그 공통하는 혼이 그와 같은 환경으로 미국에서 옥중에 있던 나를 계속 지탱해줬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합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부도덕적인 정부에 대해 후미야키 (文昭) 씨를 한시라도 빨리 해방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을 현실 시키기 위해서는 일치단결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호시노 후미야키 (星野 文昭) 씨와 부인 아키코 (暎子) 씨를 위해 일치단결합시다. 호시노 후미야키 (星野 文昭) 씨를 해방시키자.

호시노의 해방은 세계의 투쟁
미국 운수노동자 연대위원회 스티브.젤트저

호시노해방의 싸움은 세계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투쟁입니다. 전세계의 노동자가 전쟁 제국주의와 싸워 그로인해 투옥당해 탄압받고 있습니다. 아베 (安倍) 정권은 이미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해 개헌과 헌법폐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조약은 핵병기와 군비확대이며 피해를 받는 것은 전세계의 노동자 입니다. 노동자에게는 건강보험도 퇴직후의 보장도 없고 젊은 노동자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취직도 못하는데 어째서 정부는 군비확대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호시노씨의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입니다. 미 일 한의 노동자에게 알리자. 전세계의 노동자의 제국주의 전쟁반대의 투쟁을 단결시키자.

미 일 한의 노동자가 단결해 호시노씨 무미야씨 철도노동자등 전세계의 정치범 노동운동범을 해방하자.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호시노씨를 해방시키자.

호시노씨 해방의 노래

"소리다리티"를 대합창



마루오 (丸尾) 메구미씨



류우이치 (福山 竜一) 씨

마루오 (丸尾) 메구미씨 후쿠야마 류우이치 (福山 竜一) 씨가 해방의 노래를 3곡 연주했습니다.

첫노래는 "소리다리티"입니다. 마루오 (丸尾) 씨는 "이곡이 싹이 터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꼭 배워서 돌아가실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리모도소우 호시노 (되찾자 호시노)"를 작곡한 후쿠야마 (福山) 씨는 "이곡은 전해준 가사를 보던중에 5 분 정도에 작곡했습니다. 호시노씨에 대한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 마음이 전해져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모두 어깨동무하며 불러질 것을 꿈꾸며 오늘은 그 대표로서 노래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세번째 곡은 "아노 사카오 노봇때 (저 언덕을 올라)"입니다. 마루오 (丸尾) 씨는 "아키코 (暁子) 씨의 마음이나 기분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조용히 노래 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박수 속에서 "이 노래로 호시노씨를 되찾자"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두사람의 오리지널곡 "미나토

(항구) 스크린"하고 "호시조라토 테노히라토 (별하늘과 손바닥과) "가 연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루오 (丸尾) 씨의 지도로 호시노씨 해방의 마음을 담아 "소리다리티"를 힘차게 대합창을 했습니다.

함께 싸우는 결의

파업이 분노를 해방시킨다

전국 노동조합 교류센터 대표



츠지카와 신이치 (辻川 慎一)

一)

이 사진을 토우쿄우 (東京) 의 언제나 같이 데모를 하는 소학생의 텃짱에게 받았습니다. 내일 국철 미토 (水戸) 동력차 노동조합은 조우반센 (常磐線) 의 타즈타 (竜田) 역 연장 중지를 위해 제 삼차의 파업을 합니다.

이와키의 가설주택 나라하 (檜葉) 의 가설주택에서 국철 미토 (水戸) 동력차 노동조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지가지의 분단이 있고 특히 나라하 (檜葉) 의 가설주택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폭 마을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불안을 일절 말하지 못한다. 옆그룹과 서로 감시시켜 마음속의 주장을 일절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쟁때는 상호감시로 전쟁반대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집단적 자위권으로 전쟁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미 후쿠시마 (福島) 의 현실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되는 말은 짝소리도 못내는 이 현실. 여러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우반센 (常磐線) 의 타즈타 (竜田) 역 연장을 둘러싸고 국철 미토 (水戸) 동력차 노동조합이 싸우고 있는 것은 = 전쟁에 대한 투쟁이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근본적 싸움입니다. 이시하라 (石原) 환경장관이 후쿠시마 (福島) 의 후타바 (双葉) 오오쿠마 (大熊) 에 중간처분시설이라는 최종처분장을 만드는 열여섯 번의 설명회에 한번도 오지 못했다. 5 월달 국철 미토 (水戸) 동력차 노동조합의 투쟁이 직격했습니다. 나라하 (檜葉) 마을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에 일어서 맹렬하게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돈목적" 이란 것입니다.

40 년간 불굴.비전향으로 투쟁해 온 호시노씨는 바로 지금 일본의 노동자 계급 대중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호시노씨와 서로 단결해서 이년동안 이른살 때까지 탈환한다 단결해서

싸움시다.

토쿠시마 (徳島) 면회일기

감동을 널리 확대시킨 후미아키코의 28년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暁子)

6월 3일부터 6일까지 처음으로 4일간 연속 면회를 하게 되었다. 전날밤에 아키타 (秋田) 에서 돌아오는 강행 스케줄 때문에 3시부터 면회를 했다. 후미아키는 막 목욕하고 나왔다고 했다. 상쾌한 모습이었다.

야마카와 (山川) 씨가 준비해준 A4 사이즈의 장미꽃 사진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키타 (秋田) 의 회화전과 집회에서 받은 롤링페이퍼를 보여줬다. 천 가운데에 해바라기가 그려져 가지각색의 크레용으로 모두가 써준 컬러풀한 롤링페이퍼다. 아크릴판을 잔뜩 펼쳐 보이자 후미아키는 눈을 여러군데 둘러보며 기뻐했다.

이날은 30일에 이바라키 (茨城) .우시쿠 (牛久) 에서 있었던 회화전과 집회 31일 국철 미토 (水戸) 동력차 노동조합 주최의 이와키집회 6월 1일 아키타 (秋田) 에서 열렸던 회화전과 집회의 보고가 주요보고였다. 아키타 (秋田) 에서 성공한 고양감이 남아 있어서 드물게도 나는 계속 이야기 했다.

5월 30일 우시쿠 (牛久) 에서 있었던 회화전과 집회를 쿠사카베 (日下部) 씨가 시작한 『사랑과 혁명』의 대출운동중에 만난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화전을 개최해줬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집회에서 내 이야기를 청취해준 정신장애자의 아이를 가지신 어머니로부터 "살아가는 활력을 받았습니다"라고 감상을 받은 이야기를 전했더니 "무기징역중에 무엇이 제일 힘이 될까를 생각해 아키코 (暁子) 씨와 함께 사는 것 모두와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제일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 소중한 여기며 살고 있다. 그것을 봐줘서 자기에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생각해 우리들이 소중한 여기는 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해"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국철투쟁의 코다마 (小玉) 부부 화가의 아시노 마사하루 (芦野 雅春) 씨 인형작가의 아시노 준코 (芦野 純子) 씨 부부를 중심으로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져 처음으로 아키타 (秋田) 에서 열린 회화전은

3일간에 백명이 본것을 전했다. 그리고 6월 1일 집회는 삼십명이 참가해줬다. "집회에서 내가 강연 했는데 감동했다고 울면서 들어준 사람이 꽤 있었다. 작년까지 호시노를 몰랐던 사람들이야. 내가 아키타(秋田) 대학의 청취생으로 배우고 있었을만큼 세미나의 선생님이셨던 분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활의 자기비판이라는 것을 깨우쳤다. 이 수년동안 이렇게 까지 깊게 마음을 움직이게 한 일은 없었다』고 말해줬어"라고 말했다.

또한 아시노 마사하루(芦野 雅春) 씨가 "원화를 안봤으면 몰랐다. 두손 들었다. 이 아이의 불따위는 만지고 싶어지게 그려져있다"라고 말했던 것을 확실히 전했다.

5.31 이와키집회의 보고도 했다. 육백명의 집결. 이 집회를 한 것을 통해 타츠타(竜田) 죠우반센(常磐線) 타츠타(竜田) 역까지의 연장저지를 호소하는 국철 미토(水戸) 동력차 노동조합의 투쟁이 가설주택의 주민 나라하(榎葉) 마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나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라하(榎葉)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집회에서 호시노탈환의 어필을 한 것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토쿠시마(徳島) 형무소에 대한 더위대책 신청도 했다.

6월 5일 삼일째의 면회. 전 신병 인수인이신 아오야나기 아키히로(青柳 晃玄) 씨와 함께 면회를 했다. 병이신 아오야나기(青柳) 씨와 동행한 군마(群馬)의 이토우 시게오(伊藤 成雄) 씨의 면회가 허가를 못 받았다. 아오야나기(青柳) 씨의 후계자로서 타카사키(高崎) 경제대학 때부터 친구인 이토우(伊藤) 씨의 면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아오야나기(青柳) 씨는 싱글벙글 하면서 면회해 92세의 키타하라 코우지(北原 鈺治) 씨가 산리즈카(三里塚)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해 "산리즈카(三里塚) 원전반대 국철에서 승리해왔다. 보살을 넘어 여래가 뉘 후미야키(文昭) 군이 그 뒤에 있다"고 말했다. 후미야키는 즐거운 듯이 아오야나기(青柳)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멋지다"라고 말했다.

처음인 사일간의 면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면회였다.